

몽골 전통가옥 ‘게르’의 공간구조와 현대적 변화, 확산에 관한 연구

오태림(지리교육과 3학년) · 황은철(지리교육과 3학년)

초록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게르(Ger)’는 중앙아시아의 척박하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인해 형성된 드넓은 초원지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거주하는 가옥형태이다. 유목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벼운 목재와 펠트를 주재료로 제작하며 이동에 적합하도록 조립과 해체의 편리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게르의 구조와 공간의미를 설명하고, 세계화·산업화 이후 현대적으로 변화한 게르의 공간적 확산을 지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방면에 활용되는 현대 게르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주요용어 : 몽골, 몽골 전통가옥, 게르, 이동, 공간구조, 변화, 확산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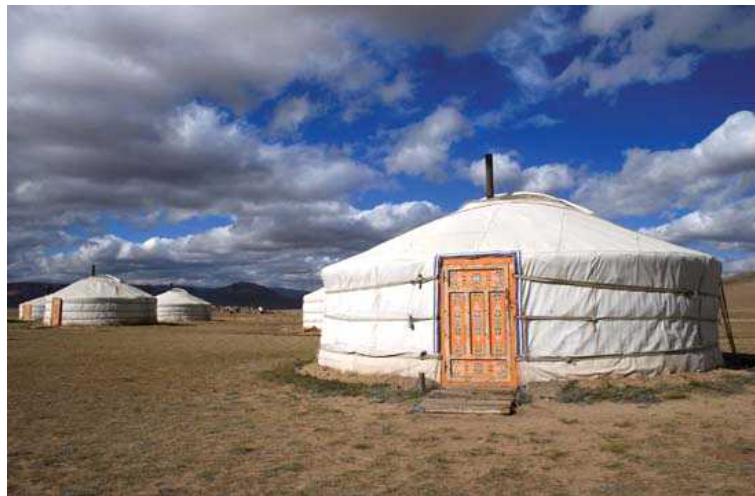


그림 1. 몽골 울란바토트에 위치한 전형적 게르의 모습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우리나라에 게르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서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게르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물은 거의 찾기 어렵다. 시중에 출판된 지리 교과서 또한 몽골 유목민들의 거주지로서 게르를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료, 몽골에서 발행된 도서와 신문 기사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전역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게르의 구조와 공간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 확산¹⁾을 통해 각 나라의 기후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확산(diffusion) : 헤거스트란트(Hägerstrand)의 공간적 확대의 형태를 기준으로 팽창 확산과 재위치 확산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의 확산은 팽창 확산을 의미하며 인구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 범포의 공간적 범위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출처 : Terry Jordan-Bychkov, Mona Domosh. 2009, *The Human Mosaic 8th Edition*, W.H. Freeman & Company)

2. 게르의 구조와 공간

1) 게르의 구조와 구성요소



그림 2. 해체된 게르를 싣고 이동하는 모습
(출처 : 다음카페 도깨비의 방)

오랜 역사동안 게르는 유목민의 유목생활에 맞추어 최적화되었다.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는 유목의 특성상 유목민들의 주거는 ‘그림 2’의 모습처럼 빠르게 조립, 해체, 이동 가능한 구조로 단순화, 간결화 되었다. 넓은 초원에서 목축을 위해 적합한 장소로 이동할 방향과 거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집 자리를 선정하여 게르를 제작하는 방식은 세대를 거쳐 축적된 유목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통지식에 의거한다.



그림 3. 게르를 설치하는 과정
(출처 : 몽골 교육문화 및 과학부)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게르의 구조는 최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들은 원형의 모양을 한 지붕틀 ‘토오노(Toono)’, 지붕틀인 ‘오니(Uni)’, 원형지붕틀을 받치는 두 개의 기둥 ‘바가나(Bagana)’, 벽체 ‘하나(Khana)’, 출입문 ‘하알가(Khaalga)’이다. 여기에 펠트와 캔버스와 같은 외피를 덮으면 게르는 완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가축에 싣고 이동할 수 있기에 게르는 유목생활에 최적화된 주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게르 구조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과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성요소	명칭	특성
	토오노 (Toono)	원형지붕틀로서 측면의 구멍에 지붕틀 오니를 끼워 함께 지붕구조를 이룬다. 게르의 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오니 (Uni)	지붕틀로서 토오노와 하나 사이를 연결한다. 길이는 게르의 규모에 비례한다.
	바가나 (Bagana)	토오노를 받치는 기둥으로 구조 중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다. 높이는 게르의 규모에 비례한다.
	하나 (Khana)	게르의 벽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4~6개의 한을 이어 벽체를 완성한다.
	하알가 (Khaalga)	게르의 유일한 출입구이다. 과거에는 천이나 피복으로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목재로 된 문을 주로 사용한다.

표 1. 게르 구조의 구성요소

원형지붕틀인 토오노는 몽골의 오랜 역사 동안 원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틀 안의 격자 디자인은 시대와 부족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였다. 기능적으로는 게르 내부의 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토오노 위에 ‘우르흐(Urh)’라는 천을 덮어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토오노는 게르에서 하늘과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성시되는 부분이다. 오니는 지붕틀로서 토오노와 함께 지붕구조의 뼈대를 형성한다. 오니 위에 덮는 천막을 ‘데베르(Deever)’라 하며, 이 천막을 덮음으로써 게르의 지붕이 완성된다. 바가나는 원형지붕틀인 토오노를 받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게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이다. 또한 바가나는 유목민들의 의례의 중심에 있는 구성요소이며 게르에서 가장 신성시된다. 바가나는 꿈을 일컫는 고대 몽골어에서 유래했다. 그 이유는 몽골 부족들이 사냥을 하던 시기에 꿈을 잡은 경우, 꿈의 머리를 기둥 위에 매달아두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대의 몽골 부족들은 바가나에 꿈의 문양을 장식하여 선조들을 기렸으며, 지금도 바가나에 선조들의 영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²⁾ 하나는 게르의 벽체이다. 게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개 이상의 하나를 연결시켜 둥근 형태의 벽체를 만든다. 과거에는 게르의 크기를 위계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였다.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은 6~8개의 하나를 사용하였으며, 왕과

2) 김형준, 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 2호, pp.34

왕족만이 12개 이상의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³⁾ 하나를 등글게 감싸는 천은 ‘투우르가(tuurga)’ 라고 하며 우르호, 테베르, 투우르가가 구조 전체를 덮으면 게르의 지붕과 몸체가 완성된다. 하알가는 게르의 출입구이며 몽골어로 ‘문’ 을 뜻한다. 과거 칭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한 시기에는 천으로 문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난방에 효율적인 목재 문으로 바뀌었다. 하알가는 부족의 상징이나 가족의 신앙과 관련 있는 문양과 장식으로 꾸민다. 게르의 외벽 전체를 감싸는 펠트⁴⁾는 가축의 털을 가공한 것으로 여름에는 한겹의 펠트를 덮으며 아랫부분을 걷어 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한다. 겨울에는 2-3겹으로 겹쳐 덮어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이와 같이 단순하고 간결한 게르의 구성 요소들은 유목민의 이동주거에 최적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게르의 공간요소와 의미

게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출입구의 방향이다. 게르의 출입구인 하알가는 반드시 남쪽을 향한다. 현지인들이 게르를 지을 때 따로 입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평평하고 가축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 게르의 최적지가 된다. 게르의 터는 평평한 초지 위에 그대로 지었다. 초지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혹한기나 악천후에 가축들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이다.⁵⁾ 현대에 와서는 시멘트나 목재를 이용한 데크를 바닥에 깔고 게르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성된 게르의 터는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게르의 기둥 바가나를 세우기 위해 기둥 하부를 파야 하는데, 게르를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파여 있는 기둥 하부를 다시 메우지 않고 돌로 메운다. 수년이 지나고 다시 초지가 형성되면 유목민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림 4. 게르의 내부 공간
(출처 : 포토그래퍼 Joel santos)

3) B. Myagmarbayar, 2007, ‘History of Mongolian Ger’ , Ashmon Art, p.38

4) 펠트(felt) : 동물 털에 수증기·열·압력 등을 가하면 축융성에 의해 섬유가 서로 엉키고 줄어들는데 이를 이용하여 천과 같이 만든 것이다. 과거 중앙아시아의 유목생활에서 펠트는 게르의 외벽과 가옥·침구·의복의 재료가 되었고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겨울기후로부터 유목민들을 지켜내고 치유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출처 : 한·중앙아시아 교류 25주년 기념 책자)

5) 김형준, 동일 논문, pp.35

게르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기본 생활공간이다. 자녀들이 자라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측에서 새로운 게르를 혼수로 마련한다. 이때부터 다섯 가지 구조부재들은 평생 사용하며, 게르를 덮는 펠트 소재의 피복은 3~5년 주기로 교체한다. 한 가족이 사용하는 게르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다. 가장 단순한 주거형태이자 공간이지만 그 안의 사회적 위계와 구성은 구분된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도 모두 포함하며 그 위치도 관습적인 전통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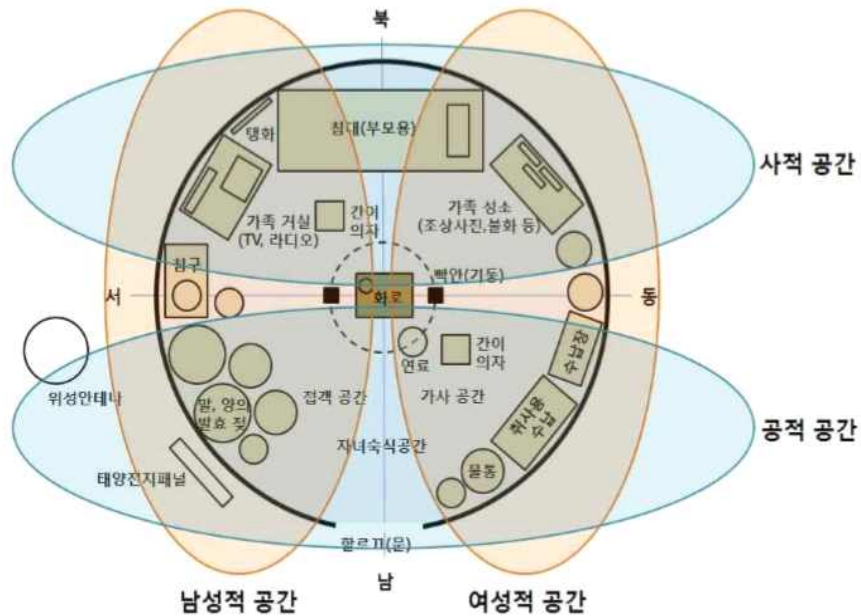


그림 5. 게르 내부의 공간구성
(출처 : 김형준, 동일 논문, p.36)

게르의 방향을 결정짓는 남향의 하알가를 기준으로 게르의 공간은 남·북측과 동·서측을 경계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바가나 사이에 놓인 화로의 영역을 중심영역으로 분리한다면 게르의 공간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게르의 중심 공간으로, 채광을 조절하는 토오노의 하부공간이자 바가나 사이 화로가 위치한 곳이다. 유목민들은 바가나에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둥 사이의 공간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금기시한다. 화로에 쓰레기를 태우지 않거나, 화로의 불을 외부인이 게르 밖으로 가져갈 수 없는 점도 이러한 관습 때문이다. 이처럼 게르의 중심은 물리적으로나 의례적으로도 일치한다. 화로와 동·서측을 기준으로 게르의 공간을 남북으로 구분할 때 북쪽 영역은 게르 주인의 사적 공간이 된다. 상대적으로 남쪽은 공적인 성향을 가진 공간이 된다. 북쪽에는 주인이자 부모의 침대가 놓여있어 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남쪽에는 출입구가 있어 가족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출입도 잦아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적인 성격이 강한 북쪽 공간을 다시 동·서 영역으로 구분하면 게르 북쪽의 동편은 두 번째 영역, 게르 북쪽의 서편은 세 번째 영역이 된다. 두 번째 영역은 조상들의 사진이나 종교적 상징물, 가보가 위치하고 가족 성소의 역할을 한다. 가족이나 손님도 가족 성소(북·동 측면)를 등지고 앉을 수 없다. 또한 집주인인 부모가 잘 때 머리 방향은 반드시 가족 성소를 향하여야 한다. 세

번째 영역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있어 마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남쪽 공간을 다시 동·서 영역으로 구분하면 게르 남쪽의 동편은 네 번째 영역, 게르 남쪽의 서편은 다섯 번째 영역이 된다. 네 번째 영역은 취사용, 식사용 수납장과 조리도구들이 위치하고 공적이면서 여성들의 가사 공간으로서 활용된다. 다섯 번째 영역은 집객 공간의 역할을 하며 아이락⁶⁾ 포대, 말과 양의 발효된 젖이나 치즈를 저장해 두는 저장장소로 이용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사랑채나 응접실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게르의 현대적 변화과 확산

1) 게르의 현대적 변화

1980년대 후반,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유목(1차 산업)에 종사하던 몽골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현대화된 서구 건축 양식의 보급과 사막화·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잦아지며 게르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21C 이후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유목민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게르를 이동시켜 형성된 ‘그림 6’ 과 같은 슬럼⁷⁾이 형성되었다.



그림 6. 울란바토르 도심 외각에 형성된 게르촌의 모습
(출처 : Grandpoohbah's blog - Ulaanbaatar Ger District)

몽골 현지에서는 이러한 슬럼을 ‘게르촌’ 이라 부르며 이곳에는 울란바토르 인구(약 120만 명)의 60%가 포장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범죄와 알코올 중

6) 아이락(аираг) :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말·양이나 염소의 젖을 이용해 만드는 전통주. 대개 몽골의 게르에 방문하게 되면 한 잔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7) 슬럼(slum) : 도시사회에서의 지역 병리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이 많은 지구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 (출처 : 지리용어사전)

독, 빈곤 문제가 심각하여 몽골 내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게르촌 내부의 게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다의적 성격이 퇴화되었고 단지 정착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여 샌드위치 패널 주택⁸⁾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게르촌에서 생활하는 정착민들을 제외하고 선조 때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유목 방식을 고수하며 초원지대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몽골 전체 인구 304만 명 기준 약 80만 명에 이른다⁹⁾. 이 유목민들은 21세기 초까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몽골 정부의 노력으로 2013년에는 유목민의 약 70%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게르에 적용되었다. 특히 게르 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에너지를 얻는 ‘가정용 휴대 태양광발전 시스템(Solar Home System)’이 적용된 이후 전기를 생산해 텐트 내부의 조명시설, 휴대전화, 냉장고, TV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유목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7. SH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르의 내부
(출처 : Grandpoohbah's blog - SHS Ger)

에너지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 게르에 사용하던 원목보다 습기에 강하고 가볍고 튼튼한 목재를 사용하고 단열과 방수성이 우수한 섬유원단을 사용하여 게르의 구조를 이루는 목재와 천(펠트)의 질을 향상 시켜 기존 게르가 가지는 장점인 편리한 조립과 해체, 이동과 게르의 영구성을 극대화하였다.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¹⁰⁾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유목민들의 최신식 게르를 여행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현대식 게르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다.

-
- 8) 샌드위치 패널 주택 (sandwich panel house) : 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으로 건축한 주택. 표면은 플라스틱 판·알루미늄 판·스테인리스 판 등 강도가 큰 재료를 쓰고, 내부는 종이나 목재, 발포 플라스틱 등을 써서 보온·방음·강도를 높인다. (출처 : 환경공학용어사전)
- 9) 2010년 기준 자료 (출처 : 한국일보, 2013, “휴대폰 통화하며 초원 내달리는 칭기즈칸의 후예들”, 12. 20)
- 10) 테를지 국립공원(Gorkhi-Terelj National Park) : 울란바토르 동북쪽 70km에 위치한 국립공원.



그림 8. 테를지 국립공원 내부의 게르 숙소
(출처 : 테를지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

2) 게르의 공간적 확산과 다양화

몽골의 전통 가옥으로 사용되던 게르는 공간적 확산을 통해 각 지역의 기후나 환경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는 해체와 조립이 간편하며 이동 가능하다는 특성을 장점으로 부각하여 게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북부에 있는 플랑드르의 한 마을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실공간으로 게르를 사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교실을 건축할 때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기존의 서구적 건축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게르를 교실로 선택하였다. 게르 교실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교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동식 주거 문화를 간접 체험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림 9. 플랑드르 지역의 교실로 활용되는 게르
(출처 : The UB post)

미국에서는 게르를 이동주거로서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습윤한 기후에 약하다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로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 전통 게르의 원형만 차용하여 게르가 가지는 미적 아름다움을 살리고 건축자재와 내부 구조를 모두 현대식으로 개조한 리조트나 숙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온난 습윤하고 강수가 고른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는 게르를 활용한 리조트를 선보여 숙박·레저 공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¹¹⁾ 리조트 개발 담당자는 전통적인 게르가 강수량이 많은 오리건 주의 기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자재를 습기에 강하게 제작하고 게르 외부를 방수천막으로 보호하여 단점을 보완하였다. 온난 기후지역에 속하지만 높은 고도에 위치하여 월 별로 강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일정한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는 강우가 내리는 지역을 파악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게르를 2002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과 진행요원의 숙소로 채택하였다.¹²⁾ 이 밖에도 습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로키 산맥의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에서는 반영구적 게르를 제작하여 사계절용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게르를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처음 게르가 도입되었을 때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산지로 이루어진 굴곡진 지형 특성과 계절풍 기후 특유의 많은 강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형태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방수기능의 천막과 습기에 강한 원목을 자재로 사용하면서 단점을 극복하였고, 구조물 자체의 하중을 줄여 기복이 심한 산악지형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켰다. 동시에 게르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기업 또한 많이 생겨나 별장용·산업용·업소용 등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을 위주로 게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기복진 산지에 설치된 게르의 모습
(출처 : <https://blog.naver.com/wellup>)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공간적 확산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는 현대적 게르는 전통적인 외관의 개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공간·주거형태로서 활용되고 있다.

11) 현대적 게르를 연구하는 전문가(<https://blog.naver.com/wellup>)의 조사자료.

12) 현대적 게르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조사자료.

4. 결론

몽골의 게르는 오랜 역사 동안 몽골 유목민의 유목생활에 맞추어 변화해왔다. 그리고 이 게르는 현재까지도 몽골 유목민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게르의 구조와 부재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그 공간 또한 원형의 형태를 가진 단일한 공간이다. 그러나 게르의 구성요소들은 요소별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 공간 또한 단일 공간 내에서 서로 다른 특성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의미도 유목민들의 오랜 전통과 세계관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게르의 공간은 간단하지만 다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유목민의 게르는 현대적 변화를 겪으며 많은 국가와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다양한 공간으로 확산된 게르는 기존의 전통적·다의적인 주거공간의 성격을 나타내진 않지만 각 지역의 필요와 기후환경에 맞추어 발달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게르보다 내구성이 강한 반영구적 게르로 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특별함과 개성을 나타내는 건축물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화 된 게르는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가족 단위의 세컨드 하우스나 숙박 시설, 구호 주택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결론에 덧붙이자면 게르에 대한 연구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조차도 구하기 어려웠다. 현재 유목이 이루어지는 몽골이나 현대적인 게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채 연구 자료를 수집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게르의 구조와 공간 뿐 아니라 현대적 발전과 확산을 지리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동주거 형태에 대한 연구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황경순, 2013, “몽골의 전통주거 ‘게르’에 내재된 전통지식과 문화 공간적 특성“, 비교민속학, pp. 275-300.

김형준, 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 2호, pp. 31-38.

박환영, 2010, 몽골의 유목문화 연구, 역락.

이안나, 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첫눈에

B. Myagmarbayar, 2007, ‘History of Mongolian Ger’ , Ashmon Art.

D.Maidar and L.Darisuren, 1976, ‘Ger’ , Ulaanbaatar.

한국일보, 2013, “휴대폰 통화하며 초원 내달리는 칭기즈칸의 후예들” , 12월 20일.

TheUBpost, 2016, “French school adds a ger classroom to their campus“, sep.4.

National Geographic, 2011, “Chinggis Khan’s descendants who flocked to the city” , Oct.13.

Siminoe Sevudredre 이타우카이 언어문화연구소 수석행정관, 무형유산과 전통건축,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ichcap.org>. (2017-12-20 방문).

Wellup의 게르하우스 이야기, <https://blog.naver.com/wellup>. (2017-12-10 방문).